

저희 스미스채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적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에 번성(multiply)하는 꿈이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오늘 스미스채플 **한국어 예배** 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능력이 가득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 **목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3 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권씩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3. **속회 모임 안내: 목요일 저녁 7 시 (Zoom)**

*예배위원 -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의 부름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	성찬위원
3/8 박진철	양성심	이신천	강호	강주혜
3/15 채영원	김연미	강주혜	강호	김호연
3/22 김종문	박미자	양성심	박진철	이신천
3/29	연합예배 및 A Great Awakening 영화 상영			
4/5 채영원	강주은	강주혜	강호	김연미



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그레이트폴스 캠퍼스

한국어 예배

2026년 3월 8일

오후 1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2

© GODpeople.com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95:1-7

박진철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 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 보아라. **아멘.**

찬송 Hymn

288.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
스미스채플 글로벌 감리교회

11321 Beach Mill Road, Great Falls, VA 22066. 571-434-9680
www.SmithChapelGMC.org/in-Great-Falls

대표기도 Prayer

양성심

성경 봉독 Scripture

에베소서 2:11-22

이신천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2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13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15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16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17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18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21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특별찬양 Special Song

양성심, 강주은

말씀 Sermon

강호

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말씀 노트:

묵상 질문:

-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져야 할 관계의 '벽'이 내 삶에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내가 먼저 화해와 용서를 향해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 바울은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번 주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처럼 어떻게 그들을 대할 수 있을까요?

성찬식 Holy Communion

성찬위원: 강주혜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파송 찬송 Sending off Hymn

221. 주 믿는 형제들

축도 Benediction

한주도 주님 안에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살롬살롬!